암흑 속에서 피어난 '탁월함'

무너진 경제 상황, 왕궁 사회의 붕괴와 재분배 경제 체제의 파괴. 사라져가는 문자 체계. 모든 방면서 그야말로 '암흑'을 경험했던 암흑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잃은 그리스인들은 어찌보면 그들의 '탁월함'으로 삶을 계속해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탁월함은 모든 인간의 강점을 총집합 시켜놓은 단어인 것 같다. 인간의 모든 강점은 '~에 탁월하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이 탁월함을 중시했던 것도 이해가 간다.

탁월하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라고 말한다. 또, 탁월하다의 반대는 흔히 열등하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열등하다 라는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인들에게 탁월함은 어떤 의미였을까? 무슨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을 선정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열등한 사람을 정의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탁월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게 아니라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이므로 조금만 덜 뛰어나면 탁월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 조금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지금도 그 기준을 정의내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 내렸을지 더 모르겠다.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 그리스는 탁월함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획득했는데 당시 나라의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 엘리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것을 별로 안좋아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에 선정되는 엘리트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결정적으로 부유하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또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엘리트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부유함과 올바른 행동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확실히 부유함 쪽이 더 우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엘리트들이 무조건 따뜻한 마음씨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들도 결과적으로 높은 신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이기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의 틀을 깨고, 또 그들이 행동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그가 속한 가문의 과거 영광이 어떠했든 간에 그는 사회적 치욕이나 매장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암흑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생각보다 회복이 많이 되었던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다. 왠지 모르게 내가 공부했던 모든 고대 역사들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짐승만 못하거나 사람 취급을 못받을 정도로 좀 많이 낮았기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여성의 지위가 지금 만큼이나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도 그들의 탁월함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지 않을까.

탁월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했다. 이 말이 정말 두렵게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다. 태어날때부터 신분이 정해져있는 사회, 혹은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능이 없다면 매장당하는 사회. 둘 중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듯 하다.